# 여수 광양항에 '제주 물류 전진기지' 들어서나

도, 국가~제주 물류체계 연계 방안 조사 용역 결과 공개 입지·시설·물류 등 고려 여수 지역 항만 우선 대상 선정

제주의 물류시스템을 국가 차원 물 류체계와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물류 전진기지'의 최적지를 검토 한 결과 전라남도 여수 광양항이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물류 전 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용 역의 최종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제주 내륙에 물류 전 진기지를 구축, 국가 차원의 물류 체계와 제주의 물류시스템을 연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조사를

양지공원 5월까지 시설 보수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이 화장

동 및 추모의집(봉안당)을 이용하

는 추모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냉·난방설비 설치공사를

이번 설치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설비의 노후화(2002년 설

치)로 고장 발생 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1억

6000만원을 투입해 화장동에 20대

제2추모의집 제례실에 6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양지공원은 올해 3월

1500만원을 투입해 고장으로 민원

불편이 발생했던 제2유족대기실 등

총 4개소에 우선적으로 냉·난방설

비를 교체 설치했다.

완료할 계획이다.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는 제주연구원이 맡았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제 주 물류체계 개선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수 광양항에 물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제 약으로 인해 육상~해상~육상 또는 육상~항공~육상 등 이중적인 운송 체계로 내륙 대비 많은 물류 비용 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 는 정부에서 수립할 '제4차 물류시

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 신설 을 반영해 국가물류기간망에 제주 물류가 포함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제주도의 대표적인 예산 낭 비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된 경기 평 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의 선례를 감안해 정확한 시장조사와 요건 분 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됐 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수 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 2013년 48 억여원(국비 보조 50%)을 들여 조 성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 다 결국 14억여원에 매각됐다.

연구진은 제주항내 물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주항 물동 량의 장래 수요 예측과 시설 여건

물류 연계망 수준 등을 토대로 '제 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안)'을 제시 해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 처리가 용이 하고 제주물류 전진기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시설을 확보해 복합물류 연계성이 높은 항만을 발 굴해냈다. 연구진은 항로, 기반시설, 공적기능 등을 고려해 여수 광양항 을 우선 대상 항만으로 선정했다.

단, 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선 택배화물 전부를 컨테이너화할 수 있고, 제주신항과 여수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택배화물 물류센 터(집하장) 유치가 필수 조건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서귀포시 투명페트병 처리사업 '노다지'

작년 전국최초 시행… 올 4월까지 판매액 2억6600만원

서귀포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 행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직접 처 리 사업을 통한 판매 수입금이 2억 6600만원을 기록하며 자원순환 선 도 시책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전 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평균 783kg씩 투명페트 병을 수집해 t당 60만5000원에 매 각하고 있으며, 매각 총량은 94t· 6592만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투명페트병 직접 처리량은 381.7t으로 판매액 은 2억1069만원이다. 당시 매각단 가는 kg당 552원이며, 올해는 605 원으로 53원(9.6%) 올랐다.

시는 특히 깨끗한 상태의 투명페 트병을 수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 전용 압축 차량 2대를 투입하 고 있다. 제주시의 매각단가인 500 원에 견줘 높은 가격에 매각하며 수익폭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40 플라스틱 제 로 제주'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줄 이기 실천에 앞장서서 자원 재활용 선순환 선도 도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0 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6만 6000t에서 2040년 매립이나 소각 없이 3만3000t으로 50% 감량하겠 다는 의지다. 백금탁기자

## 삼다수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수상

### 41개국서 488개 제품 출시 먹는샘물 업계 최초 수상 "혁신성과 친환경성 등 인정"

제주삼다수가 친환경 리사이클 페 트를 적용한 '제주삼다수 리본(RE :Born)'으로 '2023 월드스타 패키 징 어워드'음료(Beverages) 부 무 위너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는 세 계포장기구(WPO)가 주최하는 세 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혁신적이고 우수한 패키징 기술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41개국에서 총 488개의 제품을 출품했으며 이 중 국내에서는 제주삼다수 리본을 포 함한 10개 제품만이 수상작에 명단 을 올렸다.

제주개발공사는 리사이클 페트 (CR-PET)를 적용한 친환경 제품 '제주삼다수 리본'의 혁신성 및 친 환경성을 인정받으며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국내 먹는샘물 업계 최초 수상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작 '제주삼다수 리본'은 화 학적 재활용 페트인 '스카이펫'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주개발공사가 SK케미칼과 손잡고 2021년 10월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리사이클 페트는 플라스틱 사용 량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K)-순 환경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8일 2000여명의 어르신 등이 자리한 가운데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 이상국기자

## "제주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하세요"

도-제주TP, '디지털 노마드' 참여기업 모집

고대로기자

국내 대표적인 '위케이션' 장소로 10개 내외 기업을 모집한다 각광받고 있는 제주에서 기업 직원 들이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 )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안솔루션 등 기업당 최대 600만원 는 기회가 제공된다.

크(제주TP)는 오는 22일까지 '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지털 노마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디지털 노마드는 코로나 대유행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거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로 확산 되는 추세다.

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업은 공유오피스를 비롯해 화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Digital 상회의, 협업툴, 가상화솔루션, 보 장소에 상관없이 주로 노트북이나 상당의 서비스를 11월까지 지원받 게 된다.

'제주산업정보서비스(www.jeis.or

.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TP는 자격 요건과 신청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서 기반 서비스의 필요성, 활용계 획 등을 종합심사해 이달 중 참여

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 관계자 는 "기업의 원격근무가 증가하는 만큼 디지털 노마드 문화를 정착시 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제주의 새로운 경제구조의 한 축으로 뿌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TP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 노형동·함덕리 지적재조사 제주시, 경계 결정 이의 접수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 결 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지난 4월 12일 제주 한 노형동 522필지 33만2715㎡, 함 덕리 201필지 13만5950㎡ 등 총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귤고리!

723필지 46만8665㎡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면적 증감 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 제주시는 노형동과 조천읍 함덕리 외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 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 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8 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시는 2013년 이래 지 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적불부합지 23개 지구 5569필지 645만5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 업을 마쳤다. 진선희기자



## "다이어트 / 스트레스 고민 끝"



이방송댄스&걸스힙합이태보&에어로빅

·돌비댄스·이린이방송댄스·개인레슬

에피소드댄스스쿨

원장 **송명훈 T. 748-4899** 제주시 월랑로 39(노형동 동마빌딩 6층) 할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u>확 줄어듬</u>→2년 안 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